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사용

『이슬라의 아이들』

독서 지도안



[전 3권]

1권.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

2권. 시인의 법정

3권. '온새미로의 사' 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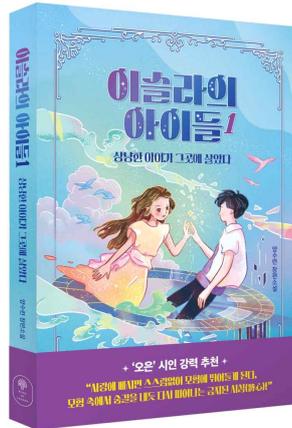
작성 |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이 독서지도안은 책이라는신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gira_22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



“난 우리가 잃어버린 걸 되찾고 싶어.”

낮선 감정들과 마주하며 내면의 바다를 탐험하는 판타지 성장소설

◆
소설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아요

‘이슬라’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섬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른들의 말도 잘 듣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이슬라에서 사는 이성적인 아루는 바다에서 온 ‘오션맨’ 야니를 우연히 마주합니다. 자유롭고 감정에 솔직한 야니는 아루의 세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두 아이의 만남은 고요하던 이슬라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완벽한 세상 이슬라와 자유로운 바다에 사는 서로 다른 두 세계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이슬라의 아이들』은 ‘시’가 사라진 섬 ‘이슬라’를 배경으로, 아루와 야니가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판타지 성장소설입니다.

아루와 야니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나답게 숨 쉬고 있을까?”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쪽수
1	독서 전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4
2	독서 중·후	주인공 한 장, 인물 소개 카드 작성하기	5
3		아루와 아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건 정리하기	6
4	독서 후	독서 질문	7
5		뒷이야기 예측하기	10

1차시 독서 전 활동 -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여러분이 읽게 될 소설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소설을 읽기 전에 앞표지와 뒤표지, 서문을 살펴본 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p>앞표지</p> 	<p>뒤표지</p> 
---	--

서문

*
○

동서남북이 바다로 둘러싸인 어느 미지의 섬.
‘이슬라’라 불리는 그곳에
건강한 육체와 평평심을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

독서 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독서 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표지 그림에는 어떤 장면과 분위기가 담겨 있나요?		→ 실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일치했나요? 다르게 느껴졌나요?	
『이슬라의 아이들 1』의 부제는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약해 봅시다.	
서문은 각 도서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문의 주제어를 선정하고, 중요 주제어를 선택해 보세요.		→ 책을 읽고 난 뒤, 서문을 다시 살펴보고 서문의 의미를 해석하여 적어 봅시다.	
이슬라의 아이들은 모두 ‘완벽한 아이들’이라고 불립니다. ‘완벽함’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 이슬라 사회가 만든 ‘완벽한 아이들’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작품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함’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지도 tip 독서 후에도 생각을 정리해 보고, 독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2차시 독서 중·후 활동 - 주인공 한 장, 인물 소개 카드 작성하기: 인물 정리하기

인물 소개 카드를 작성해 봅시다.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며, 그 인물들이 어떤 성격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소설 속 인물을 한 명 선택하여 인물 소개 카드를 제작하고, 완성된 카드를 모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카드를 통해 작품의 인물 관계가 한눈에 정리되고,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p>인물의 모습 그려보기</p>	
<p>이름 등장인물의 이름</p>	
<p>인물 관계 주인공과의 관계, 혹은 다른 인물과의 연결 고리</p>	
<p>성격·특징 인물의 성격, 습관, 말투, 가치관</p>	
<p>주요 사건 인물이 겪은 주요 사건이나 갈등</p>	
<p>상징적 장면 그 인물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p>	
<p>나의 해석 이야기 속에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느낀 점</p>	

3차시

독서 중·후 활동 - 아루와 야니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건 정리하기

우리가 읽은 소설 속 주인공 ‘아루’와 ‘야니’는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닌 곳에서 각자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이슬라에서 야니는, 그리고 오아시스호에서 아루는 각자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이번 활동은 아루와 야니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같은 시간 속에 두 인물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한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놓치기 쉬운 장면들이, 다른 인물의 여정을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건 기록하기	오아시스호에서 아루는……	이슬라에서 야니는……
<p>(예시)</p> <p>아루가 기자들을 피해 바다의 오아시스호를 타게 되고, 야니는 이슬라에 남게 되었을 때</p>	<p>기자들을 피해 항구로 온 아루는 출항 직전 야니를 만나고, 자기 대신 모비 박사를 돌봐 달라는 야니의 부탁을 듣고 오아시스호에 올라탄다.</p> <p>처음에 아루는 야니가 곧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배가 출항하고 나서야 야니가 이슬라에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야니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배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차르는 “이건 야니의 선택이었다”며 회항을 거부한다.</p>	<p>야니는 아루에게 모비 박사를 부탁한 뒤, 차르에게 자신이 이슬라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차르는 걱정스러웠지만, 야니의 결정을 존중한다.</p> <p>이슬라에 남은 야니는 육지의 다양한 자연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고, 이후 ‘방주책방’에서 일하게 된다.</p>

지도 tip 정답은 없습니다. 아루와 야니의 발자국을 차근차근 되짚으며,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나만의 시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차시 독서 후 활동 - 독서 질문

1. 아루는 점심시간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 무엇을 하려 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음껏 숨을 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 아루는 코로 숨을 쉬는 다른 이슬라의 아이들과 달리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교실에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입숨을 쉬면 다른 아이들에게 냄새가 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호흡하는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27쪽 참조)

2. 이슬라의 사람들은 왜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나요?

건강한 신체를 지닌 아이라 하더라도, 열일곱이 되기 전에 심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17쪽 참조)

3. 아루의 엄마 로사는 왜 아루에게 '이슬라의 아이답게', 그리고 '이든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로사는 아루가 자연 임신으로 태어나 권텀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슬라의 다른 아이들보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슬라 사회에서는 권텀백신을 통해 완벽한 신체와 평정심을 지닌 아이로 자라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로사는 아루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로사는 아루가 이슬라의 기준에 맞는 '정상적인 아이'로 살아가길 바라며, 그가 '이슬라의 아이답게', 그리고 모범적인 아이인 이든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4. 권텀백신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권텀백신 정책이란, 이슬라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모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권텀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백신 정책이다. 권텀백신은 단순한 예방 주사가 아니라,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절 백신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들여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감정들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21쪽 참조)

5. 이슬라 기념관에 오션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션맨이 바다를 개척했다는 내용은 왜 없어? 이슬라기념관이라면 우리의 이야기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오션맨은 원래 이슬라 사람들이잖아.”

야니는 못 보고 지나친 게 아닌지 전시 보드를 되짚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션맨에 관한 기록은 없었다. 오션맨의 뿌리가 이슬라에 있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으며 자랐는데 말이다. 야니는 실망을 넘어 이걸 배신이라고 격분했다.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 본문 중에서

이슬라의 지도자였던 카이는 더 완벽한 아이들을 만들어 충격 사건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권텀백신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고, 마침내 모비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권텀백신 정책을 두고 이슬라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이 생겼다. 결국 카이는 반대 세력을 배에 태워 바다로 내쫓았고, 그들이 다시는 이슬라에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오션맨의 역사는 이슬라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졌으며, 이슬라 기념관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다.

6. 모비 박사가 이슬라 기념관의 전시물을 훼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비 박사가 이슬라 기념관을 망친 이유는,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후배 서누 박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여겼던 모비 박사는, 자신의 업적이 서누에게 빼앗겼다고 느껴 분노와 상실감에 휩싸였다. 이슬라의 역사에서 이미 지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기념관을 망치고 말았다. (189~190쪽 참조)

7. 야니는 왜 아루를 보고 '반쪽 아이'라고 했을까요?

야니는 허깨비처럼 서서 현판을 올려다보다가 태풍에 떠밀렸다.
기념관의 육중한 나무 문에 이마를 쿵, 찡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아파라.”
야니는 이마를 문질렀다.
“정신을 딴 데 파니까 그렇지.”
남은 아파 죽겠단데 하는 소리하고는. 야니는 눈을 흘기며 아루를 쳐다봤다. 이슬라의 아이들은 이성적이어서 낭만을 모른다고. 야니는 못내 안타까워하던 모비의 얼굴이 떠올라 서운한 마음을 거뒀다.
“반쪽 어른보다는 반쪽 아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무슨 말이야, 그게?”
“그냥 나 혼자 하는 말이야.”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 본문 중에서

이슬라의 아이들은 이성적이고 통제된 존재이지만, 아루는 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완전히 속하지도 못한 '사이'에 있었다. 야니는 그런 아루에게서 이성적인 면과 세상의 틀에 맞추지 않으려는 자유로움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하여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8 이슬라에서 시가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슬라에서 시가 사라지게 된 것은 아이들의 감정과 경험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그에 맞서 인간의 감정과 자유를 지키려 한 시인들의 갈등 때문이었다. 모비 박사는 아이들이 감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경험 데이터 이식 연구를 진행했고, 카이는 이를 퀀텀백신 정책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이에 로인과 시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느끼고 성장할 권리를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카이는 강제로 시인들을 이슬라에서 내쫓았다. 그 결과 시를 쓰던 사람들도, 시 자체도 사라지게 되었다. (175~178쪽 참조)

지도 tip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하여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9 로인은 왜 '태양 시인'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을까요?

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빛과 따뜻함, 그리고 깨달음을 전하고 싶었다. 로인은 자신의 시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양 시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것이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상상하여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0. 책 속에서 발췌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카이는 이슬라의 시집을 모조리 불태웠다. 시인은 물론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바다로 내몰았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아루는 모른다. 검게 변한 로인의 얼굴과 부릅뜬 로인의 눈동자로 그때의 상황을 짐작만 했다.
“이해하기 어렵겠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따라야만 되는 게 있어.”
“할머니는 카이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오션맨에겐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이슬라에선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살게 한 카이를요?”
“널 위해서였어. 아니, 아이들을 위해서였지.”

『이슬라의 아이들 1: 상냥한 아이가 그곳에 살았다』 본문 중에서

① 로인이 이슬라에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슬라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 손자인 아루와 남은 아이들에게 시와 인간다움의 씨앗을 남기기 위해 로인이 이슬라에 남았다고 생각한다. 비록 오션맨과 뜻을 같이하지는 못했지만, 이슬라 안에서 아이들에게 '진짜 감정'과 '깨달

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② '이슬라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로인이 자기 한 사람의 감정이나 고통보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시가 사라진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언젠가 다시 시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제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지금, 무지갯빛 오로라가 넘실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
소설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아요

야니가 바다로 돌아간 뒤, 이슬라 학교에서는 시 한 구절로 인해 모든 것이 뒤흔들립니다. 그 시로 인해 아루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니는 망설임 없이 다시 이슬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섬의 평온한 일상 아래 감춰져 있던, 어른들이 숨겨 온 이슬라와 오션맨, 그리고 이슬라 역사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시는 오션맨에게는 영혼과도 같지만, 이슬라에서는 금지된 것입니다. 야니는 아루를 구하고, 잃어버린 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법정에 섭니다. 과연 이슬라의 하늘 아래 다시금 시가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은 아루와 야니, 그리고 아이들이 이슬라가 잃어버린 ‘시’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는 순간,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쪽수
1	독서 전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13
2	독서 중·후	이슬라와 오션맨, 관계로 이어지는 세계: 인물 정리하기	14
3		시와 함께 사건을 기록하다: 사건 정리하기	15
4	독서 후	독서 질문으로 확장하며 책 읽기	16
5		시인의 법정	20

1차시

독서 전 활동 -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여러분이 읽게 될 책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앞표지와 뒤표지, 서문을 살펴보고,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p>앞표지</p> 	<p>뒤표지</p> 
---	--

서문

*
○

땅에서 서로 만난 빗물이 시냇물을 이루고,
 시냇물은 서로 만나 강물을 이루고,
 강물은 서로 만나서 바다로 향하네니
 바다는 강물과 시냇물과 물방울이
 서로 만나 이루는 거대한 세계다.

독서 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독서 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표지 그림에는 어떤 장면과 분위기가 담겨 있나요?		→ 실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일치했나요? 다르게 느껴졌나요?	
『이슬라의 아이들 2』의 부제는 '시인의 법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 『이슬라의 아이들 2 : '시인의 법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약해 봅시다.	
서문은 각 도서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문의 주제어를 선정하고, 중요 주제어를 선택해 보세요.		→ 책을 읽고 난 뒤, 서문을 다시 살펴보고 서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적어 봅시다.	
저자는 왜 '바다'를 '완벽한 세계'의 상징으로 선택했을까요?		→ 이야기를 다 읽고 난 지금, 바다는 어떤 세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나요?	

2차시 독서 중·후 활동 - 이슬라와 오션맨 관계로 이어지는 세계 인물 정리하기

『이슬라의 아이들』에는 섬에서 살아가는 이슬라인들과 바다에서 살아가는 오션맨이 등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공간에 속해 있지만, 두 집단은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며, 각자의 신념과 감정이 얽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이슬라의 사람들과 오션맨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등장인물들이 어떤 인연으로 이어져 있는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림으로 정리해 보세요.



**섬에 사는
이슬라인**



**바다에 사는
오션맨**

3차시 독서 중·후 활동 - 시와 함께 사건을 기록하다: 사건 정리하기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에서 야니와 로인이 남긴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들이 품은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이슬라의 세계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짧은 시 문장 속에 인물의 삶과 고통, 그리고 변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본문에 나오는 ‘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귀를 직접 필사하고, 그 시가 등장하는 장면이나 관련된 사건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정리하기> 활동 방법

- ①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에서 마음에 남은 시 한 구절을 고릅니다.
- ② 그 글귀를 활동지에 정성껏 필사하고, 선택한 이유를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 ③ 해당 시와 관련된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 그 시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 ④ 활동이 끝난 뒤에는 친구들과 서로의 글귀를 공유하고, 시가 등장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시 구절 필사하기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 정리하기	
인물	
사건	
배경	

4차시 독서 후 활동 - 독서 질문으로 확장하며 책 읽기

1. 배에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야니는 왜 이슬라로 가야겠다고 차르에게 말했을까요?

야니는 우연히 타미 선생님과 토니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이슬라 중산간학교의 교장이 학교를 순회하던 중 시가 적힌 종이를 발견했고, 그 시가 아루가 쓴 것이라 오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야니는 오해를 바로잡고 아루를 돕기 위해 이슬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2. 아루는 야니의 문장을 읽고 난 뒤부터 '진짜 나 같다'면서 좋아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발췌 글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냐. 중요한 건 네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내 안의 뭔가가 불끈거린다는 사실이지. 어떤 생명체가 내 안에 있어서 막 꿈틀거리는 것 같다고나 할까. 네 문장을 만나기 전의 나는 완전 가짜였어.”

“그땐 뭐, 네가 아니었던 소리야?”

“그런 건 아니지만, 이슬라기념관에 있는 그 밀랍 인형 같았지. 지금은 내가 진짜 나 같아서 좋아.”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본문 중에서

① 야니의 문장을 읽은 아루는 왜 자신이 '가짜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아루는 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내도 마음속에서는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니의 문장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자기 내면이 흔들리고 '이게 바로 나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 그전까지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인형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진짜 나'로 깨어난 것이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②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진짜 나'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믿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친구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말할 때, 용기 내서 나만의 생각을 말했을 때 '아, 이게 진짜 나구나'라고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눈치를 보지 않고 솔직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야니의 '오로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래의 발췌문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오션맨들은 차르가 야니를 너무 받아 준다고 야단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야니의 오로라가 비칠 때면 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야니의 감정을, 오로라를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이로 교장은 야니의 오로라를 보지 못했다. 야니의 마음에 공감했다면 오로라의 기운을 감지했을 거였다. 그렇더라도 이로 교장은 눈에 이상이 생겼다면 병원을 찾았을지 몰랐다. 바다에서 살아온 오션맨에 비해 이슬라의 기성세대는 감정이 메말랐다.

야니의 기분이 좋을 때는 오로라의 색도 밝았다. 지금처럼 어두운 오로라는 야니가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꺼안지 못한 때에 불안의 징조로 나타났다. 차르는 아루를 생각하는 야니의 마음을 오로라의 색으로 충분히 가늠했다.

오션맨들은, 야니의 오로라에 관해 차르가 말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야니한테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다고 여겼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야니의 오로라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실에 혼자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한 그때부터다. 차르는 야니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안 들어주고는 못 배겼다. 바다의 오아시스호에서 야니에게 안 되는 일은 없었다. 할 수 없는 것도 없었다.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본문 중에서

① 야니의 '오로라'는 무엇인가요?

야니의 오로라는 마음의 빛, 즉 감정이 드러나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기분이 좋으면 밝은색으로, 불안하거나 힘들면 어두운색으로 변하는 오로라는 야니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 같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② 차르는 왜 야니의 오로라를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차르는 야니의 감정을 너무 잘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정 앞에서 무력함을 느낀 게 아닐까. 누군가의 슬픔이나 불안을 너무 생생하게 느끼면 위로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차르는 그런 마음으로 야니의 오로라를 보며 그저 함께 느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③ 교장과 다른 오션맨들은 왜 야니의 오로라를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야니의 오로라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공감'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이라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장이나 다른 오션맨은 야니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느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라를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④ 이슬라인들이 오션맨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슬라에서는 권태백신 정책 이후 감정을 통제하게 되었고, 감정의 불안정함을 일종의 '병'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안정'과 '질서' 속에 두려는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마음을 느끼는 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오션맨처럼 진심으로 공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힘이 점점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4. 학교 징계로 퇴학당하게 된 아루는 억울하면서도 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아루는 이든과 똑같아지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진짜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야니를 만나고 시 문장을 읽게 되면서, 자신이 더 이상 누구를 따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퇴학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은 억울했지만,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을 느꼈던 것이다. (75~76쪽 참조)

5. 웨이의 엄마는 웨이가 '우아한 분노'를 알게 될까 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래의 발췌문을 읽고,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엄마는 우아한 분노를 웨이가 알게 될까 봐 걱정이라. 언니, 근데 우아한 분노가 뭐야?”

야니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차르는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다.

야니도 할 수만 있다면 웨이에게 그런 언니이고 싶었다.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몰랐다. 잠시 고민하다가 말문을 열었다.

“웨이는 화난 바다를 본 적 있어?”

“응. 이따만 한 배를 바다가 한입에 앙, 삼켰다가 토했어. 웨이가 먹으려고 앙, 깨문 비스킷처럼 배가 갈라졌어.”

웨이의 얼굴엔 당시의 놀라움과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진짜 무서웠겠다. 우아한 분노라는 건 말이야. 저기 바다 보이지? 지금은 잔잔하니 평화롭잖아. 꼭 이슬라의 아이들 같지. 물고기도 내주고, 수영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배도 무사히 다닐 수 있게 해 주잖아. 근데 바다가 화나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바다의 신령에게 얹드려 청하지.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이야. 근데, 산은? 웨이는 산이 바다처럼 화내는 걸 본 적이 있을까?”

“없는데…….”

“엄마는 우아한 분노를 웨이가 알게 될까 봐 걱정이라. 언니, 근데 우아한 분노가 뭐야?”

야니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차르는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다.

야니도 할 수만 있다면 웨이에게 그런 언니이고 싶었다.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몰랐다. 잠시 고민하다가

말문을 열었다.

“웨이는 화난 바다를 본 적 있어?”

“응. 이따만 한 배를 바다가 한입에 앙, 삼켰다가 토했어. 웨이가 먹으려고 앙, 깨문 비스킷처럼 배가 갈라졌어.”

웨이의 얼굴엔 당시의 놀라움과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진짜 무서웠겠다. 우아한 분노라는 건 말이야. 저기 바다 보이지? 지금은 잔잔하니 평화롭잖아. 꼭 이슬라의 아이들 같지. 물고기도 내주고, 수영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배도 무사히 다닐 수 있게 해 주잖아. 근데 바다가 화나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바다의 신령에게 엎드려 청하지.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이야. 근데, 산은? 웨이는 산이 바다처럼 화내는 걸 본 적이 있을까?”

“없는데.....”

웨이는 도리질하듯 고개를 흔들었다.

“실은 언니도 본 적 없어. 산은 좀처럼 화낼 줄 모르거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산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도 산은 아마 화내지 않을걸? 그렇다고 산을 만만히 보면 큰일 나. 산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길을 잃거나 조난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 우아한 분노란 건 그런 게 아닐까.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 말이야.”

“알 것 같아. 저기 있는 언니의 문장지 같은 거야. 자꾸 고개 숙여 보게 만들잖아.”

“실은 언니도 없어. 산은 좀처럼 화를 낼 줄 모르거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산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도 산은 아마 화를 내지 않을걸. 그렇다고 산을 만만히 보면 큰일 나. 산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길을 잃거나 조난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 우아한 분노란 건 그런 거 아닐까.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 말이야.”

“알겠어. 저기 바닥에 있는 언니의 문장지 같은 거야. 자꾸 고개 숙여 보게 만들잖아.”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본문 중에서

① 산과 바다를 비교해 보세요.

산	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은 많은 사람이 와서 자원을 빼앗고 상처를 내도 화를 내지 않는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하다. • 산은 ‘만만하게 보면 큰일 나는 존재’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 산의 분노는 누군가를 직접 해치지 않지만, 그 안에서 길을 잃게 하거나 조난되게 만들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는 평소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화가 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삼켜 버린다. • 바다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화가 나면 폭풍과 파도로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 사람들은 바다의 분노를 직접 경험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신령에게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빈다.

② ‘우아한 분노’란 무엇인가요?

야나가 웨이에게 설명하듯, 바다는 화가 나면 거세게 폭발하고 모든 것을 삼켜 버리지만, 산은 아무리 상처받아도 겉으로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산을 함부로 대하면 사람들이 길을 잃거나 조난되듯이, 산의 분노는 조용하지만 깊을 뿐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만든다. 즉, 우아한 분노는 산처럼 상대를 파괴하지 않고 스스로 성찰하게 만드는 분노라고 생각한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③ 웨이의 엄마는 왜 우아한 분노를 알게 될까 봐 두렵다고 한 것일까요?

웨이의 엄마가 우아한 분노를 두려워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화’가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강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슬라는 쿼텀백신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통제하며, 감정의 폭발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여겨 억눌러 왔다. 따라서 웨이가 우아한 분노를 알게 되면 체제의 위선과 모순을 깨닫고 부당함에 맞설 수 있기에, 엄마는 웨이가 다치거나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6. 이지는 왜 야니에게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을까요?

이지가 야니에게 소송 방법을 알려 준 것은, 이슬라에서 시가 사라졌던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시절, 로인이 시를 읊으며 퀴텀백신이 재앙이라고 외치던 모습을 보고도 침묵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아들을 잃은 뒤, 이지는 비로소 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야니가 시를 되찾기 위해 법정에서 서러 할 때, 이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야니를 돕고, 시가 다시 이슬라에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해 길을 열어 주려 한 것이다.

7. 법정에서 로인의 시를 듣고 심정지를 호소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심정지를 겪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정에서 로인의 시를 듣고 학생들이 심정지를 겪은 이유는, 그동안 퀴텀백신으로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기 때문이다. 이슬라는 퀴텀백신을 통해 감정을 통제해 왔지만, 로인의 시는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웠다. 로인의 시 구절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잊힌 감정과 인간성의 기억을 되살리는 강한 에너지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정을 느끼지 못하던 학생들의 몸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했고,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심정지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8. 법정에서 시를 듣고 심정지를 겪은 아이들이 야니의 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허락해야 한다고 했나요? 왜 그런 반응을 보였나요?

야니의 시를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야니의 시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이슬라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야니의 문장 활동을 막는 건, 야니를 죽이는 일” 그리고 야니가 없는 이슬라는 “물고기 없는 바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민둥산, 눈도 비도 내리지 않는 하늘”과 같다고 표현했듯이, 시를 금지하는 것은 곧 이슬라의 생명과 감정을 없애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172쪽 참조)

9. 이슬라에서 선물이라 여겨지던 퀴텀백신의 부작용은 무엇이었나요?

퀴텀백신을 통해 경험 데이터를 이식하면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변화되지만, 감정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 (173쪽 참조)

10. 카이는 왜 로인의 장례식장에 찾아왔을까요?

예상치 못한 조문객은 밤이 이슬해진 때에 나타났다. 앞서 온 조문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법정에도 나오지 않던 카이가 로인이 떠난 집에 나타났다. 오션맨을 잡아가려는 건가. 카이의 등장에 야니는 불안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

카이는 로인의 주검 앞에 향을 피우고 묵념했다. 오션맨의 조문을 트집 잡기 위해 온 것이 아닌 것만은 알 듯했다.

“조용히 다녀갈 생각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와 있을 줄은 몰랐네. 내가 조문객들을 다 쫓아 버린 것 같군.”

카이는 수호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는 곧바로 책방을 나섰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카이의 뒤로 따라붙었다.

『이슬라의 아이들 2: 시인의 법정』 본문 중에서

카이가 로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이유는 그를 ‘체제의 반역자’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조문 장면에서 카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향을 피우며 묵념한다. 이 침묵은 로인에 대한 예의를 지킨 것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슬라에 진실을 숨겨 온 것에 대한 죄책감과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카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로인을 기리고 싶었던 것 같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 를 찾아서



“난 힘들더라도 곳곳하게 내 길을 가고 싶어”
여덟 개의 바다를 건너 잃어버린 ‘나’ 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여정

◆
소설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아요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 나선 야니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야니는 이슬라의 상징이 된 ‘카이’로서, 그리고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는 ‘야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가운을 만나러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번 여정에는 새로운 동료들이 함께합니다. 2권에서 만났던 울과 시하, 그리고 원정대에 합류한 마에, 레아, 포, 배로, 그리고 오랜 세월 가운을 찾아 헤매던 야니의 엄마 아모, 야니의 수행원 단디까지. 이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가운원정대’에 합류해 가운과 ‘온새미로의 서’를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위대한 가운의 시 ‘온새미로의 서’를 찾기 위한 항해는 곧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끝에서, 아이들은 마침내 진정한 ‘온새미로의 서’를 찾게 되지요.

가운원정대와 함께 항해를 떠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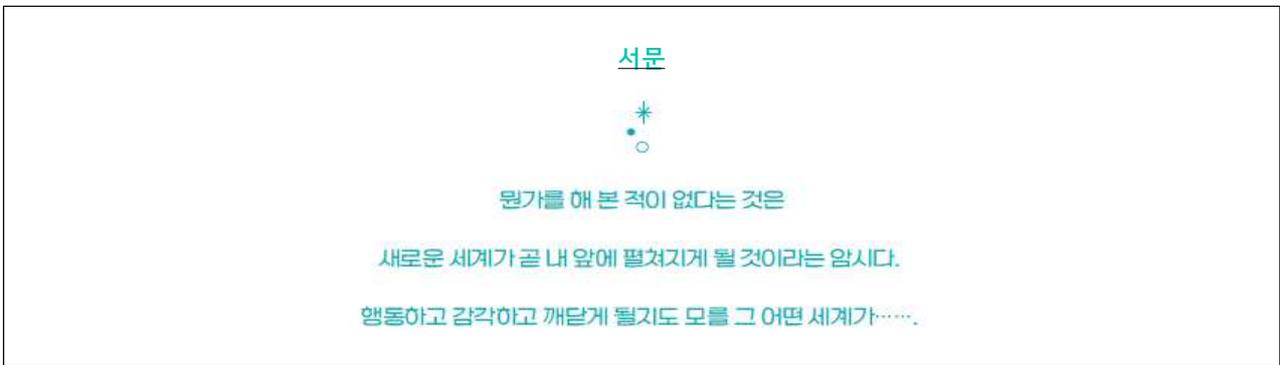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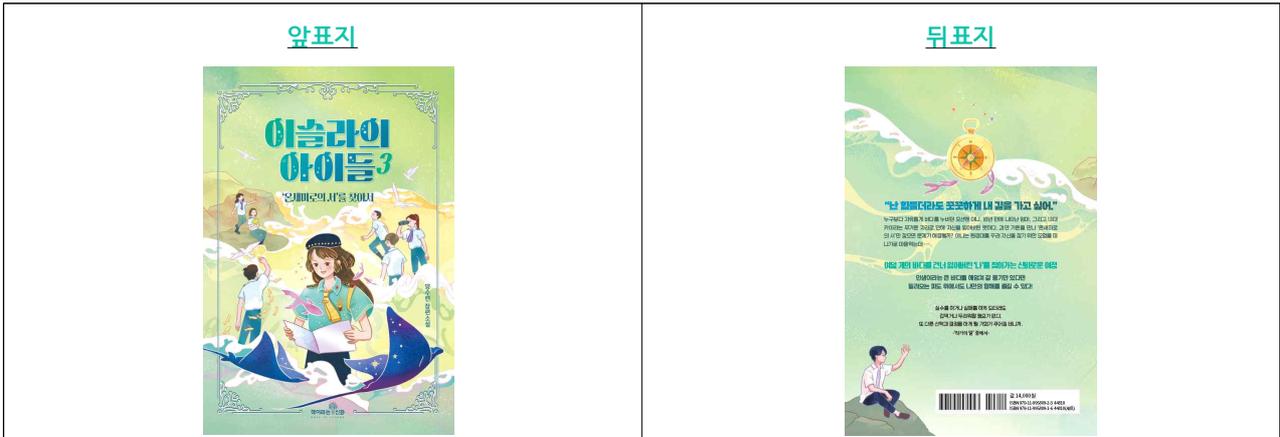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쪽수
1	독서 전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24
2	독서 중·후	가온원정대 탐구 일자: 인물 정리하기	25
3		가온원정대 향해 지도: 사건 기록하기	26
4	독서 후	독서 질문으로 확장하며 책 읽기	27
5		이슬라의 아이들, 책에서 온 편지	30

1차시

독서 전 활동 -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여러분이 읽게 될 소설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소설을 읽기 전에 앞표지와 뒤표지, 서문을 살펴본 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독서 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독서 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표지 그림에는 어떤 장면과 분위기가 담겨 있나요?		→ 실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일치했나요? 다르게 느껴졌나요?	
『이슬라의 아이들 3』의 부제는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약해 봅시다.	
서문은 각 도서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문의 주제어를 선정하고, 중요 주제어를 선택해 보세요.		→ 책을 읽고 난 뒤, 서문을 다시 살펴보고 서문 의미를 해석하여 적어 봅시다.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에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숨어 있을까요?		→ 이 책을 읽고 난 지금, 여러분에게 '아직 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는 무엇인가요? 그곳에서 어떤 나를 만나고 싶나요?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에 등장하는 가온원정대 대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여정에 참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가온원정대의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성격과 특징, 참여 동기, 브이아르섬에서의 경험을 정리해 봅시다. 또한 각 인물에게 부여된 상징색의 의미를 탐구하며, 그 색이 인물의 내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정을 마친 인물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기록하고, 친구들과 각 인물의 여정과 성장을 나누어 봅시다.

()의 모습 그려보기	()의 성격과 특징	()가 가온원정대에 참여하게 된 이유
브이아르섬에서 ()의 모습 그려보기	브이아르섬에서 ()에게 부여된 상징색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정을 마무리한 뒤, ()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를 선택하여 탐구 일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차시 독서 중·후 활동 - 가온원정대 항해 지도: 사건 기록하기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에서 가온 원정대는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 여덟 개의 바다를 건너며 수많은 섬을 지나갑니다. 각 섬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감정과 깨달음, 그리고 인물의 성장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가온원정대가 방문한 섬들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과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각 섬이 상징하는 감정과 주제, 인물들의 변화를 함께 기록하며 여정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4차시 독서 후 활동 - 독서 질문으로 확장하며 책 읽기

1. 아모는 왜 야니를 선장 차르에게 맡기게 되었나요?

아모는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야니를 선장 차르에게 맡겼다. 아모는 자신이 “무능했고,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서 야니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야니에게 고백했다. 당시 이슬라 사회는 시인 학교가 폐쇄되고, 시집이 불태워지는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아모는 세상의 폭력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과 고통에 시달리며, 자신을 구원해 줄 스승 가온을 찾아 떠나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 여정이 유일한 생의 의미이자,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긴 것이다. 따라서 아모는 야니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차르를 선택했다. 아모가 본 차르는 ‘좋은 부모이자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2. 야니는 왜 자신이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라고 느꼈을까요? 또 궁궐에서의 야니는 어떤 마음과 감정을 느꼈을까요?

야니는 궁궐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라고 말한다. 바다의 오아시스호에서 지낼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지만, 이슬라 궁궐에서는 모든 일이 정해져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카이’라 부르며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 했지만, 야니는 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 가고 있다는 두려움과 공허함을 느꼈다. 겉으로는 안정되고 평온한 궁궐이지만, 그 안에서 야니는 자기 의지와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외로움 속에 있었다. 그래서 야니는 자신이 껍데기만 남은 존재, 타인의 기대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된 것 같다고 느낀 것이다.

3. 야니는 왜 가온을 꼭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야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나’를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가온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이슬라에서 ‘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지만, 그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친구의 꿈조차 지켜 주지 못한 자신이 이슬라의 평화와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 야니는,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가온을 만나야 한다고 느꼈다.

4. 로인은 왜 손님이 없어도 방주책방의 불을 끄지 않았을까요? 그 불빛은 로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인이 방주책방의 불을 끄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구에 닿지 못한 배들을 위한 등대처럼, 이슬라에서 쫓겨난 오션맨을 향한 로인의 희망과 위로의 신호였다. 아루는 그 불빛이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억하려는 로인의 사랑과 연민의 상징임을 깨닫게 되었다.

5. 레아는 직접 원정대에 지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대신 가온원정대에 신청하여 선발되었다. 레아의 아버지가 딸의 지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대신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레아는 쿼텀백신의 효과로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는 아이였다. 기쁜 일에도 크게 웃지 않고, 슬픈 일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딸을 본 아버지는 레아가 너무 차분하고 어른스러워 마치 감정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원정대 참여를 통해 레아가 직접 세상을 보고 느끼며, 자신의 감정과 진짜 마음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대신 제출한 것이다. 즉, 레아의 아버지는 딸이 완벽한 아이로 평정심을 갖고 사는 것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짜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던 것이다.

6. 노란 꽃을 가꾸는 정원섬에 살고 있던 배로는 왜 붉은 장미를 심고 싶었을까요?

배로가 붉은 장미를 심고 싶어 한 이유는 정해진 전통과 색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과 개성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원섬은 대대로 노란 꽃을 가꾸어 온 섬이었고, 그 규율은 배로의 가족에게는 명예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배로에게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굴레였다. 붉은 장미는 배로가 느끼는 열정, 자유, 그리고 변화의 상징이었다. 그는 조부와 아버지가 완성한 ‘노란 섬’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정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즉, 붉은 장미는 전통에 순응하던 배로가 자신의 길을 찾고, 진짜 자신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드러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7. 아모는 왜 야니 몰래 가온원정대에 참여했나요?

아모가 야니 몰래 가온원정대에 참여한 이유는, 가온을 만나겠다는 평생의 염원과 미련을 끝내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십수 년 동안 스승 가온을 찾아 헤매며 인생 대부분을 그에게 바쳐 온 아모는, 이번 기회가 마치 가온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또한 딸 야니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걸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야니가 대신 완성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결국 아모는 가온을 향한 그리움과 자신의 지난날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야니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정선에 오르게 된 것이다.

8. 책 속에서 발췌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야니는 뜨악했다. 뭔가 잘못됐다. 가온을 시인으로, 그것도 시인의 왕좌에 올려놓은 시 중의 시 '온새미로의 서'가 아니던가. 읽을 수도 없는 저 돌무더기가? 야니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이 남겼다는 단 한 편의 시는 그들의 눈앞에 있는 돌무더기 균락이었다.

“다들 가온의 서가 글로 된 시라고 곧잘 오해들 하지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사물의 형상에서 인간의 언어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말이지요.”

알리는 빙긋 미소를 머금었다.

빛의 언덕은 가온이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섬을 지키기 위해 방파제를 쌓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곳이 된 지 오래였다.

“어느 해던가, 이곳의 많은 청년이 모여 방파제를 쌓고 있었지요. 태풍에 만반의 준비를 하려던 거였는데…… 청년들이 쌓은 방파제 일부가 태풍에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스승님은 그때 목숨을 잃은 백오십육 명의 청년들을 위해 이곳에 돌탑을 쌓으셨지요. 그리고 백오십육 개의 돌탑이 완성된 그날, 가온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새미로의 서'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그랬다. 가온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 자신이 살던 곳에 돌탑을 세우고 그 위에 등심붓꽃을 심었다. 돌탑 하나하나에 청년의 이름을 새겨 그들의 생을 일깨웠다. 가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삼 년에 걸쳐 쌓은 백오십육 개의 돌탑은 태풍에도 휩쓸리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었다.

돌무더기 균락은 존재 그대로 완벽한, 그야말로 '온새미로의 서'로 재탄생했다. 가온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야니는 가온을 더 모를 듯했다. 시인의 왕이란 표현도 '온새미로의 서' 앞에선 부족하게만 여겨졌다.

야니는 온 마음과 온 신경으로 감각해야 하는 초월적인 시 '온새미로의 서' 앞에서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대원 모두의 말과 생각을 한순간에 잊아 간 가온의 서였다.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 본문 중에서

① 가온이 남긴 '온새미로의 서'는 글이 아닌 돌무더기 균락의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온은 왜 시를 글이 아닌 돌탑으로 남겼을까요?

가온은 시를 단순히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존재의 흔적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 같다. 그는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 돌탑을 세우며, 그들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죽음 속에서도 이어지는 생명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을 것이다. 가온에게 '시'란 종이에 적는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손과 마음이 함께 쌓아 올린 기억과 진심이었던 때문이다. 그래서 글보다 오래 남는 돌로, 눈으로 읽는 시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를 남긴 것이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② '온새미로의 서'가 전하려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온새미로의 서'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처럼 서로 다른 감정과 사건들이 모여 세상을 이루듯, 불완전한 조각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온전한 세계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의 조화,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자연스러움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온새미로의 서'는 우리가 각자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완전함'에 다가갈 수 있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9. '온새미로의 서'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덟 개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온이 말한 '여덟 개의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덟 개의 바다'는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는 상징의 언어로, 가온이 말한 '온새미로의 서'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마음의 여정이다. 각 바다는 인간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기쁨, 노여움, 미움, 슬픔, 두려움, 근심과 걱정, 사랑과 같은 감정을 상징한다. 따라서 여덟 개의 바다는 단순한 시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내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0. 야니가 아루를 바라보며 “또 하나의 ‘온새미로의 서’”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하나의 ‘온새미로의 서’가 여기 있었네.”

야니는 아루를 돌아보곤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는 발길을 돌렸다. 야니의 걸음에 보조를 맞춘 아루가 말했다.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 본문 중에서

야니가 아루를 바라보며 “또 하나의 ‘온새미로의 서’”라고 말한 것은, 아루가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고 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루는 이슬라의 규율과 시선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였다. 야니는 그런 아루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을 담은 ‘온새미로의 서’의 정신, 즉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 아루는 완벽함을 강요받던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언어로 숨 쉬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또 하나의 ‘온새미로의 서’가 된 것이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